넥서스 브리프 2026_48 · NB-2026-048

8,8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공자금 비중은 77%다

운용사 모집은 시작됐지만 자금집행은 연말 예정이고, 일반국민 공모펀드가 아니다

지금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가.

이번 발표의 확정된 변화는 8,800억원이 이미 기업에 투자됐다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결성 부담을 크게 낮추지만, 장기 기술의 사업화 위험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공공자금 77%라는 숫자는 손실 77%를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위험 분담은 자펀드 규약과 출자약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민 -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만 보고 일반국민 가입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이번 초장기펀드는 기관투자자용 정책성 자펀드다. - 세금 800억원과 기금 6,000억원을 합친 출자비율과 실제 손실흡수 조건을 구분한다. - 10월 운용사 선정 뒤 투자기업·수수료·성과 공개 기준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 대상회사 - 운용사는 13~15년 존속기간, 6~7년 투자기간, 비인공지능·비반도체 40% 의무와 후속투자 실적 기준을 제안서에 같은 단위로 표시한다. - 투자기업은 TI5, 기술이전법상 평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중 어느 요건으로 주목적 투자에 들어가는지 문서로 확인한다. ### 당국 - 펀드별 정책·민간 출자액, 출자 순위, 손실·수익 배분, 관리보수를 선정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 투자집행액과 약정액을 분리하고, 후속투자율·상용화 단계·회수까지 장기 성과지표를 정한다.

발행일 2026.08.21 · 사실관계 기준일 2026.08.21 · PDF 6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nexusfmi.com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지금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이번 발표의 확정된 변화는 8,800억원이 이미 기업에 투자됐다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결성 부담을 크게 낮추지만, 장기 기술의 사업화 위험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공공자금 77%라는 숫자는 손실 77%를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위험 분담은 자펀드 규약과 출자약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국민 -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만 보고 일반국민 가입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이번 초장기펀드는 기관투자자용 정책성 자펀드다. - 세금 800억원과 기금 6,000억원을 합친 출자비율과 실제 손실흡수 조건을 구분한다. - 10월 운용사 선정 뒤 투자기업·수수료·성과 공개 기준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 대상회사 - 운용사는 13~15년 존속기간, 6~7년 투자기간, 비인공지능·비반도체 40% 의무와 후속투자 실적 기준을 제안서에 같은 단위로 표시한다. - 투자기업은 TI5, 기술이전법상 평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중 어느 요건으로 주목적 투자에 들어가는지 문서로 확인한다. ### 당국 - 펀드별 정책·민간 출자액, 출자 순위, 손실·수익 배분, 관리보수를 선정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 투자집행액과 약정액을 분리하고, 후속투자율·상용화 단계·회수까지 장기 성과지표를 정한다.

차례

01 확정된 사실

02 왜 이런 구조인가

03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04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지금 할 일

06 갈림길 · 공공자금 77%의 책임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07 함께 읽을 것

08 근거와 검증

09 추적 예정

10 정정 이력

11 면책 고지

8,8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공자금 비중은 77%다

운용사 모집은 시작됐지만 자금집행은 연말 예정이고, 일반국민 공모펀드가 아니다.

연구소의 판단: 이번 발표의 확정된 변화는 8,800억원이 이미 기업에 투자됐다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결성 부담을 크게 낮추지만, 장기 기술의 사업화 위험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공공자금 77%라는 숫자는 손실 77%를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위험 분담은 자펀드 규약과 출자약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위탁운용사 모집을 시작했다. 올해 조성 목표는 8,800억원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과 재정 800억원을 합친 공공자금이 6,800억원이고, 민간자금 목표는 2,000억원이다. 공공자금 비중은 **6,800÷8,800=77.27%**다.

소형 리그는 펀드당 800억원씩 3개, 중형 리그는 펀드당 1,600억원씩 4개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합계 7개 운용사를 뽑는다. 제안서는 9월 3일 접수하고 10월까지 운용사를 선정한다. 자금집행은 이르면 연말부터다. 지원분야별 출자액과 운용사 수는 선정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존속기간은 13~15년이며 1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6년이라는 표현은 이 연장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투자기간은 6~7년이다. 기존 정책성펀드의 존속기간 8~10년, 투자기간 4~5년보다 길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기술기업은 연구개발, 임상·인증, 생산설비, 상용화까지 여러 차례 후속자금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인용한 한국벤처투자 자료에서 국내 창업기업은 설립부터 상장까지 평균 14년이 걸렸다. 존속기간이 8~10년인 펀드는 기업의 상용화 전에 회수 시점을 맞아야 할 수 있다.

이번 구조는 그 기간 차이를 정책출자로 메운다. 전체 자금의 77%를 공공부문이 대면 운용사가 모집해야 할 민간자금은 23%로 낮아진다. 대신 조기 회수보다 후속투자와 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조기 회수에는 운용사 평가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기업에 후속투자하면 주목적 투자실적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이다.

투자 대상도 넓기만 한 것은 아니다. 주목적 투자는 투자용 기술신용평가 상위 5등급인 TI5 이상 기업, 기술이전법상 기술평가 기업, 발명진흥법상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업 등에 인정된다. 인공지능·반도체 이외 분야에 주목적 투자의 40% 이상을 배정한다. 공청회 당시 검토안의 20%에서 두 배로 높아졌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기업에는 자금의 시간이 늘어난다. 초기 연구개발부터 스케일업까지 후속투자를 받을 통로가 생긴다. 다만 8,800억원을 7개 펀드로 나누고 개별 투자심사를 다시 거치므로, 발표 대상 분야에 속한다고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운용사에는 결성 부담이 줄어든다. 소형 리그 800억원에서 정책출자 목표가 620억원이면 민간 모집 몫은 약 180억원이다. 중형 리그 1,600억원에서 정책출자 목표가 1,235억원이면 민간 몫은 약 365억원이다.

두 수치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리그별 총액에서 정책출자액을 뺀 파생값이다.

공공부문에는 장기 위험이 남는다. 6,800억원은 재정과 기금의 출자 예정액이지 즉시 집행액이 아니다. 또한 정책출자 비율과 손실 부담 순서는 다른 개념이다. 2026년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재정의 후순위 보강을 별도로 명시했지만, 8월 20일 초장기펀드 발표문은 펀드별 손실흡수 순서와 수익배분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펀드는 기관투자자용 간접투자 프로그램이므로 일반 개인이 창구에서 가입하는 공모펀드와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77%는 펀드 전체의 자금원 비중을 나타내는 1차 지표일 뿐, 개별 기업의 투자단계나 펀드별 위험을 보여주지 않는다. 실제 평가는 약정액, 납입액, 투자집행액, 평가손익과 회수액을 나눠야 한다. 아직 납입되지 않은 약정을 집행액처럼 더하거나 일시적 평가손실을 확정 손실로 읽으면 정책성과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1. 결성과 집행 사이

지금 시작된 것은 운용사 공모다. 선정, 민간자금 모집, 자펀드 결성, 기업 심사를 거쳐야 실제 투자가 시작된다.

2. 손실 분담의 순서

공공자금 비중은 공개됐지만 각 자펀드에서 재정·기금·민간 출자자가 손실과 수익을 어떤 순서로 나누는지는 발표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3. 투자 대상의 법적 범위

우주항공 등으로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넓히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하반기 계획이다. 개정문이 공포되기 전에는 확정된 대상처럼 쓰면 안 된다.

4. 성과 공개 기준

투자기업, 후속투자, 회수, 손실, 민간자금 유치액을 어떤 주기와 단위로 공개할지는 모집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6년짜리 구조에서는 단기 내부수익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도 어렵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만 보고 일반국민 가입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이번 초장기펀드는 기관투자자용 정책성 자펀드다.
- 세금 800억원과 기금 6,000억원을 합친 출자비율과 실제 손실흡수 조건을 구분한다.
- 10월 운용사 선정 뒤 투자기업·수수료·성과 공개 기준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대상회사

- 운용사는 13~15년 존속기간, 6~7년 투자기간, 비인공지능·비반도체 40% 의무와 후속투자 실적 기준을 제안서에 같은 단위로 표시한다.

- 투자기업은 TI5, 기술이전법상 평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중 어느 요건으로 주목적 투자에 들어가는지 문서로 확인한다.

당국

- 펀드별 정책·민간 출자액, 출자 순위, 손실·수익 배분, 관리보수를 선정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 투자집행액과 약정액을 분리하고, 후속투자율·상용화 단계·회수까지 장기 성과지표를 정한다.

갈림길 · 공공자금 77%의 책임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A · 선정 결과 중심 공개

운용사와 펀드 규모를 먼저 공개하면 결성 속도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출자 순위와 손실 분담이 보이지 않으면 공공자금의 실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

B · 자펀드별 위험배분까지 공개

정책·민간 출자자의 우선·후순위, 관리보수, 성과보수와 회수 기준을 함께 공개하면 77%의 의미를 검증할 수 있다. 영업상 민감한 조건을 어디까지 표준화할지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10월 운용사 선정 결과, 한국산업은행·우리자산운용 출자약정 안내, 자펀드 결성 공시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공포문을 확인한다.

함께 읽을 것

- 금융위원회, 2026년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방식 운용계획
-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 자료
- 한국산업은행의 중형 리그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 우리자산운용의 소형 리그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근거와 검증

확인 항목: 8건 · 1차 6건 · 2차 1건 · 파생 계산 1건

1. [1차] 8,800억원 조성 목표, 공공자금 6,800억원, 7개 운용사, 최장 16년

- 출처: 금융위원회, 「기술의 시간에 금융을 맞추는 새로운 시도, 초장기기술투자펀드가 개시됩니다」, 2026.08.20, https://www.fsc.go.kr/no010101/87569 - 위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개요·세부 출자계획·향후 계획

1. [1차] 소형·중형 리그의 펀드 규모와 정책출자액

- 출처: 금융위원회, 같은 자료, 2026.08.20, https://www.fsc.go.kr/no010101/87569 - 위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세부 출자계획 표

1. [1차] TI5·기술평가·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비인공지능·비반도체 40%

- 출처: 금융위원회, 같은 자료, 2026.08.20, https://www.fsc.go.kr/no010101/87569 - 위치: 운용사 주요 평가내용

1. [1차] 공청회 당시 재정 800억원 후순위 보강안과 최대 15년 구조

- 출처: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공청회」, 2026.07.20, https://www.fsc.go.kr/no010101/87361 - 위치: 주요 추진내용(안) - 비고: 8월 20일 최종 모집 발표에는 펀드별 손실흡수 순서가 적혀 있지 않아 확정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1. [1차]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7조원과 초장기 분야 재정모펀드 운용사

-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부문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2026.02.26, https://www.fsc.go.kr/po010103/86340

1. [1차] 기관투자자용 펀드라는 성격

- 출처: 금융위원회,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 2026.07.20, https://www.fsc.go.kr/no010101/87361 - 위치: 펀드 개요

1. [2차] 8월 20일 모집 개시 보도와 최대 16년·77% 구조 재확인

- 출처: 매일경제, 「우주항공·바이오 등에 최대 16년 투자…8800억 '인내자본' 뜬다」, 2026.08.20, https://stock11.mk.co.kr/news/view/1145540

1. [파생 계산] 공공자금 비중과 리그별 민간 모집 몫

- 산식: 6,800÷8,800=77.27%; 800-620=180억원; 1,600-1,235=365억원 - 한계: 선정 결과에 따라 펀드별 출자액과 운용사 수는 조정될 수 있다.

자료공백: 2026년 8월 21일 현재 자펀드별 출자 순위, 관리보수·성과보수, 손실·수익 배분, 최종 투자기업과 성과 공개 양식은 공통 발표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추적 예정

2026년 9월 3일 제안서 접수, 10월 운용사 선정, 연말 자금집행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공포문과 자펀드 출자약정이 나오면 투자대상과 위험배분 설명을 갱신한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와 수치는 기준일 현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니다.

이 자료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매·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